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융합적 인식 연구

유영설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The Study on the Convergenc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e Physical Education.

Young-Seol Yu
Suwon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

요 약 본 연구는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융합적 인식을 탐색하여 체육교육에 대한 반성적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30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첫째, '전문성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1은 체육수업에서 보다 전문적인 종목별 운동 기능과 기본 체육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2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정의한 유형 3은 체육교육의 필수과목 요구와 체육수업시수의 증대 등을 강조하였다. 넷째,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4는 체육교육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체력증대 및 사회성 함양 그리고 생활체육과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체육교육에 대한 반성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체육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체육교육, 주관성, 인식, Q-방법론, 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llege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 on physical education using Q-methodology. Thirty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found four type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for physical education. Type I is named 'the type of Emphasizing Expertise.' The subjects of type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professional motor skills and basic physical education knowledge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ype II is named 'the type of Emphasizing Instructional Strategy.' The subjects of type I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actively. Type III is named 'the type of Making Physical Education Mandatory.' The subjects of type III emphasize the needing to make physical education and to increase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school. Type IV is named 'the type of Emphasizing Sports for All.' The subjects of type IV emphasize to improve students' fitness and social-skill and connect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for all.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plan the effective school curriculum.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Subjectivity, Perception, Q-methodology, College Students, Convergence

1. 서론

체육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즉, 체육교육은 지행과 덕행 그리고 신체가 조화롭게 형성된 인간을 육성하는 교과이다. 대부분의 교과가 주로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지적 능력 향상을 교과목표로

*Corresponding Author : Young-seol, Yu (ysssports4u@hanmail.net)

Received May 16, 2018

Revised June 27, 2018

Accepted July 20, 2018

Published July 28, 2018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적 인간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1]는 점에서 체육교과의 독특성과 중요성은 강조된다.

체육교육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으나 크게 두 개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먼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강조된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사상이다. 신체의 교육은 심신일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체육교육은 신체의 발달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체육의 범위를 신체의 외형적인 발달에 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 다른 하나는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으로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다. 신체를 통한 교육은 Williams[3]가 체육을 전인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과목으로 주장하면서 강조되었는데 이는 체육의 학문화 과정과 맞물려 체육이 교육적 당위성을 확고히 하는데 부합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육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4].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가치’와 더불어 도전, 건강, 표현, 여가, 경쟁의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1,5].

이러한 독특성과 중요성 즉,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 체육교육은 수업내용과 수업방법의 다양성 및 포괄성을 보인다. 체육수업에서는 신체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교육을 통한 지적능력 향상과 바람직한 품성 그리고 사회성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신체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수업방법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포괄적 수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양성과 포괄성은 현장 교사에게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업연구를 통한 의미 있는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구간의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를 반영하듯, 체육교육에서 수업 및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체육교사 전문성[6-9], 체육교수행동[10,11], 체육수업설계[12,13], 좋은 체육수업[14-16] 그리고 체육수업인식[17-19] 등이 중심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사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체육수업인식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체육수

업을 들여다봄으로써 체육교사들이 반성적 수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 현직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자 관점에서의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는 체육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반성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체육교육에 대한 태도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둘째,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Q표본과 P표본 선정

2.1.1 Q표본 선정(Q-sample)

체육교육에 대한 Q표본의 선정을 위해 연구대상을 상대로 한 개방형 설문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술문을 추출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고 Table 1과 같이 최종 30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1.2 P-표본 선정(P-sample)

Q표본은 연구대상자로서 선정된 Q표본에 대하여 분류를 해야 할 대상자이다. 본 연구에서 P표본은 대학 재학생 30명으로 구성하였다.

2.1.3 Q-분류(Q-sorting)

Q분류(Q-sorting)는 전통적인 Q분류방법[20]에 따라 연구대상자(P-표본)가 Q표본을 읽은 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상대적인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Q분포틀에 맞추어 분류하게 하였다.

Table 1. Q-Sample

Statement
1. PE should be fun
2. PE's domains are diverse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9. PE should be useful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11. PE is an important subject in school
12. PE is an important subject for social life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5. Sportsmanship should be based on PE
16. PE should be mean for social contribution
17. Sport ethics should be based on PE
18. PE should emphasize its own area
19. PE should be practical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21. PE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subjects
22. All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PE classes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25. PE should include leadership education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27. PE needs to make efforts for globalization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29. History of sport help to understand sports
30. Knowing the history of sport helps us know what sp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2.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Q분류 자료는 코딩(coding) 절차를 거쳐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이 이루어졌다.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value) 1.0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모형을 최종 결과로 채택하였다.

3. 분석결과

3.1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화 분석결과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고유값(Eigen Value) 및 설명력은 Table 2와 같다. 즉,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전체설명량은 52.83%로 나타났다.

Table 2. Eigen Value and Variances

	I	II	III	IV
Eigen Value	9.4786	2.7524	1.9657	1.6530
Variance(%)	.3160	.0917	.0655	.0551
Cumulative Variance(%)	.3160	.4077	.4732	.5283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이 <유형 I>과 <유형 II>는 .353, <유형 I>과 <유형 III>은 .418, <유형 I>과 <유형 IV>는 .548로 나타났다. <유형 II>와 <유형 III>은 .442, <유형 II>와 <유형 IV>는 .332, <유형 III>과 <유형 IV>은 .441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Factors	I	II	III	IV
I	1.000			
II	.353	1.000		
III	.418	.442	1.000	
IV	.548	.332	.441	1.000

Table 4는 각 유형별 P표본의 인자가중치(factor weight)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자가중치는 대상자의 유형 전형성의 지표로서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유형의 특성을 보다 많이 지닌 대상자임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대상자는 <유형 I>에 10명, <유형 II>에 8명, <유형 III>에 6명 그리고 <유형 IV>에 6명으로 구성되었다.

Table 4. Factor Loadings and the P-Sample

Factors	ID	Loadings	Gender	Age
Factor I (N=10)	P9	1.4703	M	30
	P12	1.2834	M	27
	P8	1.0922	F	23
	P19	.9904	M	25
	P11	.9765	M	24
	P14	.8606	M	26
	P29	.8600	M	21
	P1	.7288	M	25
	P4	.4075	M	24
	P27	.1725	M	21
Factor II (N=8)	P23	1.7632	M	23
	P10	1.5569	M	23
	P13	1.1692	M	23
	P15	1.0778	M	23
	P22	.8286	M	29
	P16	.7305	M	24
	P17	.6918	M	24
	P5	.4776	M	28

Factor III (N=6)	P3	1.7647	M	24
	P18	1.4455	M	29
	P21	.9905	F	22
	P2	.8969	M	24
	P20	.8151	M	22
	P25	.5642	M	26
Factor IV (N=6)	P24	1.7346	M	27
	P6	1.2524	M	28
	P30	.7898	M	23
	P7	.7563	M	24
	P26	.6052	F	24
	P28	.3418	M	20

3.2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별 특성

3.2.1 제1유형: 전문성 강조형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피교육자인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이 재미있고 신체건강을

위하여 실용적인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체육역사 교육의 환경의 문제와 감성교육의 전제 그리고 비즈니스교육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Table 5.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

Q-Statement	Z-Score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2.03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1.75
1. PE should be fun	1.74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1.62
9. PE should be useful	1.27
.....	
21. PE should be connected to other subjects	-1.25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1.43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1.45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56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성이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상이나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또한, 지친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유발되어야 활력이 돋을 것 같아요. 건강보다는 일이나 공부보다 우선인 현대사회에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체육교육은 무엇보다도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P8)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안전과 실용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체육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전문성이

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요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P9)

따라서 제1유형은 교육자 및 교과의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전문성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3.2.2 제2유형: 교수방법 강조형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2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은 수업방법이 중요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며 인성교육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필수과목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역사 교육의 의미와 체육교육의 체계성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가 재미있게 가르쳐야 흥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P23)

“같은 수업이라도 어떻게 지식을 전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와 닿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방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의 기본은 재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P10)

따라서 제2유형은 교수자의 수업방법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6.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

Q-Statement	Z-Score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1.71
1. PE should be fun	1.65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1.59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1.57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1.05
.....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21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1.48
29. History of sport help to understand sports	-1.88
30. Knowing the history of sport helps us know what sports are needed in the future	-1.96

3.2.3 제3유형: 필수과목 요구형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3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은 생활체육과 연계되어야 하고 인성교육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교육에서의 감성교육과 체육환경의 열악함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국력의 근본은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P3)

“체육수업에서 정확한 동작이나 바른 자세 등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신체가 바른 정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18)

따라서 제3유형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조하여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II

Q-Statement	Z-Score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2.14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1.67
6. PE(teacher) needs professional skills	1.43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1.29
20. PE should be based on humanistic education	1.06
26. PE is systematic generally	-1.02
24. PE should include business education	-1.36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1.44
28. PE should consider students' needs	-1.48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1.54
23. PE should be based on emotional education	-1.70

3.2.4 제4유형: 생활체육 강조형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4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생활체육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체육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학교에서 중요하다는 진술문에 강한 인식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체육교육에서 지식연마의 전제와 체육 역사교육의 중요성에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이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체육교육은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체육교육이 신체건강을 위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P24)

“체육교육은 어릴 때 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수과목이어야 하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P6)

따라서 제4유형은 필수교과로서의 체육교육의 중요성과 생활체육 및 사회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정의하였다.

Table 8. Descending Array of Z-scores and Factor I

Q-Statement	Z-Score
5. PE should be a mandatory subject	1.66
4. PE may become the sports for all	1.64
1. PE should be fun	1.59
12. PE is an important subject for social life	1.59
3. PE should be for improving physical healthy	1.31
11. PE is an important subject in school	1.25
7. Teacher's teaching methods are important in PE class	-1.03
2. PE's domains are diverse	-1.14
18. PE should emphasize its own area	-1.15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1.68
10. Accumulating the knowledge should be required in PE	-1.99

3.3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인식

본 연구에서 탐색된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인 인식을 보인 진술문은 Table 9과 같다. 대학생들은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체육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체육교육에서 역사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체육역사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Table 9. Consensus Items

Q-Statement	Z-Score
13. Environments of PE are good in everyday life	-1.00
8. Teaching PE history is important in PE class	-1.05
14. Educational environments of PE history are good	-1.12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인

식유형과 그 특성을 탐색하여 학교의 체육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주관성은 전문성 강조형, 교수방법 강조형, 필수과목 요구형, 생활체육 강조형의 4가지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유형 I>은 「전문성 강조형」으로 체육수업에서 보다 전문성을 높여 주기를 바라는 유형이다. 이들은 기능 수준과 흥미 등을 포함한 수요자의 요구도 수업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체육교육은 재미를 전제로 하여 신체건강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교육과 체육역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이론교육의 중요성 강조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나 감성교육 그리고 타교과와의 연계적 교육에는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 강조하는 전문성은 신체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기술의 습득과 체육이론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현장에서의 체육수업이 다양한 종목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체육수업에서의 전문성은 선행연구[6,7,16,21,22]에서 주장하는 수업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특정 종목의 전문기술에 대한 습득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체육의 경우 평생 체육으로서의 실천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1유형의 학습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II>는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교수자의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인성교육과 타교과와의 연계 교육 그리고 이론적 지식교육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 이는 권민정, 김경숙[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체육교사 전문성 요소 중 ‘어떻게’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효과적인 동기유발과 관리시간의 최소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실제학습시간을 높이고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체육역사교육에 대한 환경의 부재와 체육역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낮은 인식을 나타내 체육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인호[23]연구에서 학교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사 수업의 어려움으로 체육사 내

용의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 유발의 곤란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태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수업방법과 체육사를 포함한 체육이론에 대한 지도 내용과 방법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형 III>은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체육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체육교육 시간의 증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학교체육의 강화와 더불어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유형의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전제되어야 함을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데 이는 스포츠가 경쟁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스포츠 윤리를 준거로 경쟁 상황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P3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체육교육에서 감성교육의 전제는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이는데 이는 스포츠 상황에서 감성은 자신을 중심으로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행위로서, 경쟁상황에서 감정행위는 자칫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4,18].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들은 체육교육의 증대와 더불어 보다 많은 신체활동 기회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보다 많은 체육수업 시수 확보와 체육수업에서 인성적 요소가 강조된 수업목표 및 내용의 설계를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형 IV>는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체육교육은 필수과목이어야 함과 동시에 생활체육이어야 한다는 진술문에 두드러진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반응은 ‘단기간이라도 체육교육을 들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P28)’, 또는 ‘사회성을 위해 체육교육은 필수적이어야 한다(P24)’라는 응답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석하면 체육교육은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교육 내용은 생활체육과 연계성을 높여줄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체육교육에서 지식연마나 체육역사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체육교육의 영역 및 교수의 강의방법에 대한 중요성에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체육교육에서 이론이나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위한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고등학

교 체육은 평생 체육으로서의 실천 능력 함양을 추구하는 목표와 흐름을 같이한다[5,14]. 또한, 이표상[24]의 연구에서 주장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보완적 연계필요성의 제기와 유정애와 진연경[12], 이충현과 김정완[25] 그리고 이규일[13]의 연구에서 학교체육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한 참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만족도와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의해서 지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능력과 선호 등을 고려한 생활체육과 연계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끝으로 각 유형 간 공통된 인식으로, 대학생들은 체육교육에서 체육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체육사 교육환경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육이론 수업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실내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지필시험 대비[23]를 위해 주로 이루어짐으로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실태는 학생들의 체육교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육이론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체육사 교육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고, 체육사 수업도 이론 시험을 대비하여 형식적이고 암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26-28]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15년 개정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으로 각 영역별 스포츠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14].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체육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및 교사들의 수업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을 고찰하고 이들이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탐색하고자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대학생들이 이해하고 느끼는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 C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21세기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4개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및 정의하였다.

첫째, 4개의 유형화에 대한 설명량은 <유형 I>은 31.6%, <유형 II>는 9.17%, <유형 III>은 6.55%, <유형

IV>는 5.51%로 전체 설명량은 52.83%로 나타났다. 둘째, 각 유형별 강조되고 있는 진술문을 ‘전문성 강조형’, ‘교수방법 강조형’, ‘필수과목 요구형’,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명명하였다.

‘전문성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I>은 체육수업에서 보다 전문적인 종목별 운동기능과 기본 체육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체육교육이 수요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인 전문기술의 습득과 체육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교수방법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II>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육교육은 인성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이론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필수과목 요구형’으로 정의한 <유형 III>은 체육교육의 필수과목 요구와 체육수업시수의 증대 요구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강조하기보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 전개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생활체육 강조형’으로 정의한 <유형 IV>는 체육교육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체력증대 및 사회성 함양 그리고 생활체육과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체육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탐색하여 4가지 유형을 정의하였다. 특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교현장에서의 체육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육교육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라는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담보한 계량연구와는 다른 차원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대표성 및 객관성에 대한 한계점을 제고하여,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2011).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2011(361).
- [2] Y. O. Ahn. (1994). Subject Matter Knowledge and Skill as Concepts for Justifying Physical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 1-9.
- [3] Williams, J. F.(1965). *The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W. B. Saunder Company.
- [4] S. G. Kim. (2016). A Study Goal of The Physical Education: In terms of The ‘Education of The Physical.

-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1(4), 11~25.
- [5] J. W. Lee & C. G. Park(2017). The Analysis on interest of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bout the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2015.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165-173.
- [6] O. S. Lee & E. C. Choi & H. S. Jung. (2017). A Systematic Review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4(3), 1-23.
- [7] M. J. Kwon & K. S. Kim. (2011). Research on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Factors in Middle School according to Practicing Experiences of Instruction Consulting.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8(4), 145-163.
- [8] E. C. Choi. (2011). Reexamining Professionalism of Sport Professionals: The Role and Education of the Spiritual Dimens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8(2), 1-25.
- [9] J. A. You. (2000). Research on Expertise in Teaching,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7(2), 41-59.
- [10] I. S. Nam. (2014). Effect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eaching Behaviors on Learning Motivation and Help-seeking Behaviors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9(1), 15-29.
- [11] J. H. Pyo & K. M. Lee & S. H. Jeong. (2010). The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f Physical subject and Teaching Behavior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 on Class Satisfaction in Physical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5(2), 311-324.
- [12] J. A. You & Y. K. Jin. (2016). Exploring Convergence Instructional design for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 Free Semester System throughout Olymp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3(1) 23-39.
- [13] G. I. Lee. (2012). Exploration on Analytic Framework and Instructional Content for Designing Integrative Physical Education : In Basis of Territorial Competent Activi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0(4), 1169-1203
- [14] H. C. Cho & Y. H. Seo. (2015). The Differences in Important Recognition Degree about the Aspect and the Features of 'Good PE Class' between Secondary School Preliminary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Holistic Research*, 19(4), 173-191.
- [15] S. H. Lee & S. B. Choi & J. H. Jung. (2011). Importance Analysis for Conceptions on 'Good Teaching' of Novice and Expert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2), 15-29.
- [16] J. L. Park. (2007). An Analysis for the Improving Physical Education Class Cultur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4(4), 25-42.
- [17] K, S. Park. (2017).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ype of Physical Education Clas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Academ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Will in a clas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2(1), 111-123.
- [18] E. J. Kim, & K. I. Jung & J. W. Park. (2012). Positive Understanding on Physical Education Class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Class Di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3), 63-77.
- [19] B. J. Lee, & J. W. Kim, & J. W. Yi. (2011). A Study on The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eac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2), 29-42.
- [20] Kerlinger, F. N.(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Chapter on "Q Methodology").
- [21] Goe, L.(2007). *The link between Teacher Quality and Student Outcomes: A Research Synthesis*. Washington, DC: National Comprehensive Center for Teacher Quality.
- [22] O. S. Lee. (2018) In-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ngland for Quality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ren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In-servic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2(1), 1-13.
- [23] I. H. Lee. (2012). Study on the outlook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the Unit Construction of Revised Physical Education Textbook: centering around physical education history. *Teacher Education Research*, 51(1), 106-117.
- [24] P. S. Lee. (2004). Efficient Programs for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s Curriculum through Complementary Connec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Life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14(1), 1-12.
- [25] C. H. Lee, & J. W. Kim. (2012). Effects of School Sport Activity Using the Community Sport Facilities on Sport Activity Satisfaction and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4), 159-172.
- [26] J. Y. Lim. (2007). *A Study on the Outlook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n the Unit Construction of Physical Education History in Middl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cheongbuk-do.

- [27] J. H. Lee. (2017). The Study of Religious Meaning of Spor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2(2)*, 195-205.
- [28] S. N. Nam & K. T. Eo.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Status of Korean Marath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357-371.
- [30] K. S. Oh & E. K. Suh & H. J. Chung(2018).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s about combining computational thinking with design think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65-73.
- [31] L. S. Ahn(2018). Subjectivity about North Korean refugee: A Q-methodology Approac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37-45.

유 영 설(Yu, Young Seol)

[정회원]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사)
- 2003년 8월 : 강원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체육교육, 체육행정/경영, 육상
- E-Mail : yssports4u@hanmail.net